

**조선조 가구의 장식적 표현기법과 무늬의 특징

- 덴마크와 한국의 민속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 of Ornamental Technique and Motifs in Folk Furniture of Chosun Dynasty

- In Reference to a Comparison between Danish and Korean Folk Furniture -

최정신* / Choi, Jung-Shin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ornamental technique and motifs in folk furniture between Denmark and Korea which had quite different background of development of folk furniture as one of a cross-cultural study. Furniture made and used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eliminate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ism in the design area in the 20th century. This study was fulfilled by many study trips all over the districts in Denmark to identify Danish folk furniture as well as literature study. Study trips to folk museums, Insa-dong, Janghanpyung furniture market were done for Korean folk furniture.

Characteristics of ornament in Danish folk furniture were as followings: Main materials of the Danish folk furniture were conifers, especially pine tree, as pine was very common and easy to get from their surroundings. The most popular and unique types of decoration in Danish folk furniture was painting. Colors used in painted furniture were very bright and vivid. This might be a reaction to the long and dark winter of Scandinavian countries. Motifs used in Danish folk

furniture had been chosen to reflect their surroundings.

Flowers, six-angular stars, animals, human figures and Biblical motifs were popular sources of decoration for Danish folk furniture.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furniture were as followings: Main materials of Korean folk furniture were broad-leaved trees as well as conifers, because of their beautiful wood grain. The Korean ways of decoration were different from Danish ones. The method of painting with bright colors was hardly ever used in Korea, except only in lacquering. The most popular decoration method for Korean folk furniture was revealing the natural wood grain with transparent vegetable oil finish, instead of painting.

Metal ornament was unique to Korean folk furniture, therefore a lot of metal ornaments were attached on the furniture. Motifs used in Korean folk furniture were more like symbolic than Danish ones. Korean people tried to express their longings and norms through the motifs, such as longevity, prosperity, good luck, and many sons, etc. Therefore, it was natural for Korean motifs to have special symbolic meanings.

키워드 : 비교연구, 비교문화, 민속가구, 장식, 덴마크, 한국, 상감, 나뭇결, 무늬, 상징적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전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외국을 방문하고 외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 것은 앞으로 점점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비교문화 연구는 이처럼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다 밀접한 접촉을 가질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외국을 보다 진실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또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 가구를 만들고 장식하면서 그를 통하여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소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가구 예술은 왕족이나 귀족들과 같은 상류층에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상류층의 기호와 취향만을 표현하는데 치중되어 있었다. 근세 이후에 비로소 가구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넓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민속가구를 통하여 서민들의 소망과 일상생활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문화학부 교수, PhD.

** 본연구는 1997년도 가톨릭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전 세계를 통하여 서민들의 가구가 상류층의 가구보다는 외국 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나름대로 더 독특하다는 것은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종종 우리는 좀 원시적이고 덜 정교하고 서투르게 제작된 민속가구를 접하게 되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서민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가구를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일이 허다하였으므로 그 나름대로 서투른 가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속가구의 비교연구는 비교문화연구의 일환으로서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로 매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단과 유럽 본토 사이에 위치한 반도국인 덴마크와, 동북 아시아의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반도국인 한국, 두 나라 민속가구의 장식기법과 무늬를 통하여 서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세기보다 디자인의 국제화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일반 서민들에 의해 제작되고 사용된 민속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¹⁾에서 덴마크 민속가구 장식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다룬 데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조선조 민속가구 장식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결론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비교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민속가구"라는 용어는 왕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민간에서 주로 사용된 가구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나, 덴마크의 경우에는 민속가구(folk furniture)라는 용어보다 농민들의 가구(peasant furniture)라는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재료나 장식기법에 있어서 상류층의 가구가 서민층의 가구보다 더 세련되고 고급 재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덴마크의 경우처럼 농민들의 가구라는 의미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조선조 가구에는 왕실가구와 같은 최상류층의 가구만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었다²⁾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초로 관찰, 스케치, 사진 제작을 겸하였다. 덴마크의 민속가구를 관찰하기 위하여 덴마크 여러 지방의 박물관을 수차례 견학하였고, 그 동안 여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가구 스케치, 사진 제작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한국의 민속가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인 민속촌, 온양 민속 박물관, 인사동과 장한평의 고가구 판매점 등을 견학하고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분류하여 두 나라 민속가구 장식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2. 조선조 가구디자인 발달의 배경과 특징

조선 시대의 민속가구를 고찰하려면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가

1) 최정신, 마노 구덕순, 덴마크 민속가구 장식의 특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5호 통권 91호, 1996년 5월, PP.85-97 참조. 두 나라 민속가구 장식의 비교를 위해서는 한 논문에서 두 나라 가구의 특징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면의 제한상 부득이 덴마크 민속가구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논문으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덴마크 민속가구 장식의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최정신, 마노구덕순, 앞책, P.86

의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392년 이 성계가 조선을 창건한 이래 1910년 멸망하기 까지 조선 사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상의 지주는 승유배불 정책이었고, 이것이 사회 전반은 물론 예술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교의 진흥은 엄격한 신분제도와 대가족 제도, 내외 사상을 낳게 하였고 조선 시대의 주택과 가구 디자인도 이러한 유교적인 원리에 의하여 성별, 기능별로 방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었으며³⁾ 이러한 유교의 규범과 영향은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색채와 복잡한 형태를 사용하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단순하고 검소한 디자인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조 민속가구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가구가 그 기능 이외에도 사용자, 주로 성(性)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었다. 남성용 가구는 남성용 거처에 배치된 반면에 여성용 가구는 여성의 거처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가구들이 비록 서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그 디자인과 장식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용 가구는 보다 엄격하고 단순한 디자인이었고 여성용 가구는 보다 경쾌하고 밝은 디자인이었다. 그러므로 가구의 디자인을 보고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가구의 색채와 금속 장식의 종류도 사용자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조선조 가구의 아름다움은 비단 한국인들 뿐 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도 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 왔다. 한국의 가구는 자연에 순응하여 건축되었던 주택과 더불어 그 디자인이 적어도 17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비교적 변화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그리 흔하지 않은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⁴⁾

서양에서는 1940년대말과 195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한국 가구의 전통을 발견하였고 그 이래로 서양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조선조 가구의 특징은 우아함, 튼튼함, 단순함과 아름다움의 조합이라고 표현되었다. 일본인 학자 柳宗悅은 조선의 목공예에 대하여 "인간의 척도로는 잘 채어지지 않고, 말쑥도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⁵⁾이라고 극찬하였고, 또한 浜口良光도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예리한 선과 강한 형태의 강건함과 목리의 아름다움, 의장의 변화무궁성, 속임없는 진실성에 의한 순수한 아름다움"⁶⁾이라고 표현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의 민속가구에 관심을 두게 되어 그 디자인을 복사하거나 모조품을 생산하는 일도 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한국 가구가 어느 실내 양식이나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속가구는 정적이고 위엄성을 갖추고 있어서 가구 그 자체가 주의를 끌기 보다는 실내의 다른 요소들과 잘 부합되어 우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3) 배만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2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pp 48-49

4) Edward Reynolds Wright and Man Sill Pai, Korean Furniture - Elegance and Tradition-,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4, p 13

5) 柳宗悅, "조선의 목공예", 조선과 그 예술, 동경 춘추사, 1973, p 252

6) 浜口良光, 조선의 공예, 동경 미술출판사, 1965, pp 8-9

그 특징의 하나였다.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인 선, 유럽의 가구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곡선의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⁷⁾ 이와 같이 조선조 가구의 아름다움은 자연 그대로를 재현하려는 자연미의 창조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자연미는 온화한 자연물의 시각적 효과에서 그 특색을 나타낼 수 있었다.⁸⁾

그러므로 가구에는 복잡한 장식을 하지 않고 나뭇결을 그대로 내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으며, 더구나 대부분의 가구 형태는 평평한 판재로 만들어진 단순한 사각형 형태였다. 모든 가구들은 잘 조화된 비례감을 갖추고 있었고 좌식 생활 양식에 적합하도록 그 크기가 작고, 높이도 낮았다. 한국의 장인들은 부분-세부나 장식-보다는 전체 형태에 더 치중하였고 세부 장식은 금속 장식이나 조각, 자개 상감 그리고 화각 등에 하였다.⁹⁾

또 하나의 조선조 민속가구의 중요한 특징은, 그 구조에 있어서 접합부에 아교칠이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접합 기술을 사용하여 짜맞춘 점이었는데, 많은 접합 방법 중에서도 특히 맞짜임, 연귀 짜임, 장부짜임과 같은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¹⁰⁾

조선조에는 많은 가구 장인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덴마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름을 가구에 쓰지 않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오늘날에 와서 남아 있는 걸작품 가구 제작자의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한국에서도 역시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가구들이 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덴마크와 같은 가구 제작자(cabinet-maker)들의 길드(guild) 조직은 없었고, 그 당시의 덴마크에 비하면 한국의 가구 제작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낮은 신분에 있었으므로 한국 민속가구의 지방별 차이는 길드 조직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생태학적인 자연 환경의 배경과 각 지방의 가구 제작자들의 감각이나 사용자들의 기호에 따른 지역별 특색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 가구의 유구를 오늘날에 와서 많이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한국 가구가 나무로 만들어졌고,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주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차례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가구들이 파괴되고 불에 타버린 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1910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기간동안 일본인들이 훌륭한 조선조 가구들을 대량 일본으로 수집해 간 이유도 있다. 또한 한국 전쟁 동안(1950-53) 수많은 주택 건물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사회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가구들이 파손되기도 하였다.¹¹⁾

3. 조선조 가구의 재료

3-1. 목재

조선조 민속가구의 주재료는 역시 목재였고 이와 함께 대나무, 나전, 직포, 종이 등도 쓰였다. 동서보다 남북으로 긴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가 지방에 따라 달라서 지방별로 여러가지 다른 목재를 가구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조선조에서 가구재로 사용된 나무는 30여 종이였다.¹²⁾

이러한 재료의 차이는 지방에 따라 다른 취향의 가구 디자인을 발달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조의 가구재로서 가장 많이 쓰인 수종으로는 오동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자작나무, 참죽나무, 단풍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느릅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대나무, 향나무 등이 주된 가구 재료로 쓰였다. 이 중에서 자작나무, 참죽나무, 단풍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오동나무, 느티나무 등이 고급 가구 재목으로 쓰였고, 소나무, 잣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감나무, 호도나무는 민구(民具)에 많이 쓰였다.¹³⁾

가구의 골격이나 틀과 같은 각재는 소나무, 참죽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호도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고, 상판, 측판, 바닥판, 내부 칸막이판 등으로 사용되는 판재는 소나무, 오동나무, 파나무, 전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가구의 앞면을 장식하는 화장재는 의장적인 효과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목리가 특히 아름답고 색깔과 질감이 좋은 목재를 선택하여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휘가사나무 등이 즐겨 사용되었다.

특히 휘가사나무는 표면에 잔잔한 줄무늬가 전체적으로 난 것처럼 보이는 목재로서 광택을 내면서도 부드러운 재질을 나타내는 극히 귀한 목재로 인정받았다. 목재의 아름다운 무늬결은 나뭇결을 그대로 내보이는 한국의 민속가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다.¹⁴⁾ 한국의 장인들은 재료를 자연 그대로 사용하여 재료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줄 알았다. 가구에 목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때에 각각의 목재는 그 자체의 특성과 개성을 나타내도록 세심하게 고려되었다.¹⁵⁾

그들은 재료에 속임수를 쓰거나 특별한 장식으로 재료를 가리기보다는 재료의 특성에 맞추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조 가구에는 똑같은 두개의 가구가 있을 수 없었다.¹⁶⁾

3-2. 대나무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고 속이 비었으며 마디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나무는 갈라지기 쉬운 반면에 탄력성이 강하고 건조에 의한 수축이 적으며 목재에 비하여 인공적인 착색이 쉬운 특성 때문에 죽

7) Edward Reynolds Wright and Man Sill Pai, 앞책, 1984, p 17

8) 배만실, 앞책, pp 67-68

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카탈로그 9: 조선조 목가구 특별 전시회(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80. 5.), p 80

10) Bokcha Yoon, Soon Chi, Youngsoon Park, Korean Furniture and Culture, Shinkwang Co. Seoul, Korea, 1988

11) Edward Reynolds Wright and Man Sill Pai, 앞책, P 16

12) 윤국병외, 임업통론, 일조각, 1971, pp 34-56

13) 배만실, 앞책, p 73

14) 徐有集, 林園16志, 臚用志, 卷3, 興樞工具

15) 김원룡, 한국공예 略史, 한국예술의 연구: 미술-1, 한국 예술원, pp 159-160

16) Soetsu Yanagi, The Mystery of Beauty: A Tribute the Korean Craftsman, Far Eastern Ceramic Bullitin(September/December 1957), pp 8-9

재를 사용하여 가구와 공예품을 만드는 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많이 있었다. 대나무는 한국의 남부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고, 청림 결백한 식물의 상징으로 청빈한 선비를 숭상하던 조선 시대의 유교 이념과 잘 부합되어 안방용 보다는 사랑방용 가구와 기물, 여름용 주방 기물의 재료로 더욱 애용되었다.

3-3. 나전

나전은 조개 껍질을 가공하여 여러 가지 무늬로 잘라 가구 위에 붙이는 것으로, 자개를 붙인 후, 옷칠을 하여 만든 제품을 나전 칠기라고 불렀다. 나전 칠기는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에 현저하게 발달이 되었는데¹⁷⁾ 이는 조선 시대에 와서도 더욱 발전되어 18세기를 지나면서 성립된 서민적인 솔직한 의장이 무르익게 되었다¹⁸⁾ 나전의 재료로는 전복류, 소라, 진주 조개 등의 바다 조개의 껍질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조개의 종류는 전세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¹⁹⁾ 그러나 나전은 매우 값이 비싸서 서민용 가구의 재료로는 흔히 쓰이지 못하였고 상류층에서 안방용 옷장이나 사랑방용 함, 궤와 같은 가구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3-4. 형짚과 종이

조선조의 가구나 공예품 중에는 형짚이나 종이를 이용한 훌륭한 공예품들이 많았다. 나무로 만든 가구에 형짚이나 종이를 부착하는 방법은 왕실을 포함한 상류층의 여성용 가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재료들은 여성적 취향에 맞아서 비단천에 화려한 수를 놓아 옷장으로 사용하거나 반진그릇에 색종이를 오려 붙여서 장식하는 등, 여성들이 거처하던 안방 가구와 집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형짚의 경우에는 사용된 옷감이 주로 비단이었으므로 값이 비싸서 서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고, 큰 천은 물론 작은 조각천까지도 아껴서 모자이크의 수법으로 이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신라 시대에 제지법이 계승되어 “백의지”라는 우수한 종이를 만들기 시작하여²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이 생산되었다. 한국의 종이는 다나무를 원료로 만들어 그 품질이 우수하였고 이러한 종이를 이용하여 부피가 작은 농, 상자는 물론 옷장, 책장까지도 만들어 사용하였다. 특히 서민층에서는 나무로 된 틀에 장판지를 발라서 가볍고 간편하게 농을 만들기도 하였고, 또는 색종이를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 넣어 화려하게 꾸민 후 표면에는 콩기름과 마늘즙을 발라 윤을 내기도 하였다.²¹⁾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값비싼 비단천 대신에 색종이로 만든 여러가지 지함류(紙函類)는 서민층 여성들의 소지품으로 사용되었다. 지함은 종이를 물에 풀어 풀을 넣고 반죽하여 만들기도 하였고 종이를 적당한 크기로 오려서 한장씩 반복해 붙여서 만들기도 하였다. 때로는 한

지를 노끈처럼 꼬아서 만든 소반도 민간에서 사용되었다.

4. 조선조 가구의 장식기법과 무늬

4-1. 장식기법

4-1-1 나뭇결 보이기(revealing wood grain)

조선조 민속가구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자연스런 나뭇결을 색칠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었다. 이 것은 자개를 상감하고 옷칠을 하거나 많은 금속 장식을 부착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가구에 사용되어 온 방법이었다. 나뭇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장인들은 소나무나 오동나무의 경우에는 뜨거운 인두로 지진 거칠은 벗겨내어 나무 표면을 문질러서 불에 그을린 부분은 타서 떨어지고 단단한 나뭇결만 그대로 남아서 가구의 나뭇결을 돋보이게 하는 낙동법(烙桐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콩기름, 들깨기름, 호도기름, 잣기름, 오동나무기름과 같은 투명한 식물성 기름을 나무 위에 칠하여 나뭇결을 잘 나타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식물성 기름은 나무가 트는 것을 방지하고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광택이 좋게 해주었으며 긁힘이나 습기로 부터 목재를 보호하기도 하였다²²⁾

천연의 식물성 기름칠은 강렬한 광택이 없이 가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적합하였다. 나뭇결이 아름다운 목재는 특히 가구의 앞판 재료로 애용되었는데 같은 무늬의 판재를 얻기 위하여 두세개 나무를 얇게 여러장으로 썬서 비니어링(veneering) 방법으로 앞판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마감칠하지 않은 나무(bare wood)로 만든 가구는 불투명 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장식을 부착한 것보다 자연스러운 나무의 결을 그대로 보이는데 효과적이었는데 덴마크의 농가에서는 테이블과 같은 가구들이 흔히 그런 재료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찬장이나 찬탁, 혹은 반닫이에서도 그러한 방법이 일부 사용되기도 하였다.

4-1-2 상감하기(inlay)

가구에 상감을 하는 방법은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이미 5, 6세기경의 고분에서도 상감한 가구의 유물이 발견되어 그 오랜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가구의 상감재료로는 서양에서는 귀한 돌, 값비싼 목재, 상아, 흑단 등이 많이 쓰였으나 한국에서는 조개, 목재 등이 주로 쓰였고 거북 껍질, 소 뼈, 상아, 금속사 등도 간혹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소라, 진주패, 전복과 대모 또는 동선이나 은선을 기표위에 놓고 칠(漆)로 덮어 부착시킨 다음 다시 연마하여 문양을 노출시켰는데 조선 시대에는 금속선은 거의 쓰이지 않았고 나전만으로 상감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²³⁾ 상감법에는 바탕 목재에 상감할 모양을 깊이가 고르게 떠서 그 속에 접착제역할을 하는 옷을 넣고 자개를 끼워서 만드는 “파고 박기” 방법이 고급 나전칠기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²⁴⁾

목상감으로는 색깔이 비교적 진한 먹감나무나 참죽나무를 색이 연

17) 송나라 徐兢이 집필한 高麗圖經 23 “土產” 항목에서 고려의 나전 칠기의 섬세함을 찬양함.

18) 김원룡, 한국 미술사, 漆工, 범문사, 1968, p 372

19) 배만실, 앞책, p 228

20) 예용해, 인간문화재, 지장, 어문각, 1963, p 293

21) 배만실, 앞책, p 241

22)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 pp 74-75

23) 浜口良光, 조선의 공예, 漆工, 동경 미술출판사, 1965, p 99

24) 배만실, 앞책, p 228

한 나무에 상감하는 방법이 있었고, 은 상감도 상류층에서 정교하고 작은 상자의 장식이나 가구의 자물쇠에 간혹 사용되기도 하였다. 자개 상감의 바탕 칠로는 검정, 갈색, 때로는 빨간색과 같은 옷칠을 하였으므로 상감된 가구는 안방과 같은 여성용 거처에 매우 화려한 분위기를 주었다. 그러나 남성용 거처에서는 목침이나 작은 상자와 같은 소품을 제외하고는 자개 상감은 많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감법은 제작 공정에서 많은 노력을 요하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부유한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4-1-3 옷칠하기(lacquering)

한국에서는 옷칠이 상감 가구의 배경이나 소반용 칠의 장식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흔히 사용되었다. 옷칠은 옷나무의 즙으로 만든 도료로서 도장면이 매끄럽고 단단하여 방수의 효과가 있는 특유의 도장으로, 노력은 많이 들지만 수명이 길고 광택이 부드러우며 칠면의 견고성이 높다는 점에서 도료 중에서 가장 높히 평가되어 왔다.²⁵⁾

옷나무는 중국 대륙 및 일본,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버마, 타이, 인도네시아 등지에 분포된 동양의 특산물로서 특히 한국 전역에서 생산된다.²⁶⁾ 칠은 사용 방법에 따라 생칠, 숙칠, 주칠, 흑칠, 황칠의 종류로 나눈다. 생칠은 옷나무 줄기의 껍질에 상처를 내어 거기에서 흘러나온 끈끈한 즙을 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걸러낸 것으로 숙칠에 비하여 정제된 양질의 칠로 맑고 밝은 빛을 내어 바탕 목재가 어느정도 투시되는 효과가 있다.²⁸⁾ 이에 비해 숙칠은 옷나무를 베어 불에 쪄서 받은 즙인데 생칠에 비하여 불순물이 많아 주로 질이 낮은 칠기나 주칠, 황칠의 바탕칠로 사용된다.²⁹⁾

주칠은 칠 과정에 주(朱)라고 불리는 도료를 혼합하여 착색 칠함으로써 붉은색을 나타내는 도장법이다. 이 칠은 궁중용으로만 사용되었고 민가에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었다. 흑칠은 칠 과정에 숯가루나 황토를 불에 구워 만든 검은 가루의 지분을 생칠과 혼합하여 입힌 흑색의 칠 도장이다. 이 칠은 나전칠기에 많이 쓰인 칠도장이었다. 마지막으로 황칠은 황색 종류인 갈색이나 옷칠인데 제주도 중심지로 완도, 거문도 등의 도서 지방에서 생산되었다. 생칠에 치자즙을 섞어서 그 색을 선명하게 하였다고도 하였으나³⁰⁾ 현재는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

특히 국물있는 음식이 많은 한국식 식사에 쓰이는 밥상에 옷칠은 방수와 내구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처리 방법이었고, 이 것은 밥상 뿐만 아니라 다과상과 작은 나무 쟁반들에도 흔히 쓰였다. 옷칠한 가구는 식물성 기름으로 칠한 은은한 광택의 일반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광택이 강하였다.

4-1-4 조각하기(carving)

한국의 민속가구에서 조각은 양각, 음각 및 투조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색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검소함을 추구하는 조선조의 선비 이념을 표현하는데 한자로 된 문귀를 책장의 문판에 음각이

나 양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잘 부합되었으므로 안방용 가구 보다는 사랑방용 가구에 조각하는 방법이 많이 쓰였다.

장농의 다리 부분에 곡선형의 안상문이나 식물문을 조각하는 일도 흔하였고 연상의 앞널과 옆널 전체를 투각하는 일도 있었다. 소반 중에서 해주반과 같은 경우에는 다리 부분을 두개의 판재로 만들고 그곳에 전체적으로 투각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4-1-5 금속 장식(metal ornament)

한국의 민속가구에는 풍부한 금속 장식들을 많이 부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처럼 가구에 많은 금속 장식을 부착한 것은 가구의 표면에 색칠을 하지 않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였는데, 금속 장식은 색칠하지 않고 나무의 자연색을 그대로 노출시켜 보이는 가구에서 더욱 빛나고 인상적으로 돋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조 가구에 사용된 금속 장식의 재료는 초기에는 무쇠, 시우쇠가 사용되었고 후기에는 놋쇠, 주석, 백동 등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놋쇠와 시우쇠가 주로 애용되었는데 특히 시우쇠 장식은 거명쇠로 불렸고 들기름을 칠하며 그늘러 검게 처리한 것으로 오동나무, 소나무로 만든 문방 가구나 느티나무, 피나무로 만든 장, 반닫이 등과 매우 품위있게 조화되어 조선조 가구 장식의 특색을 나타내었다. 오랜 연대일수록 금속판의 두께가 두껍고 거명쇠 장식이 많았고, 후기로 내려올수록 두께가 얇아지고 놋쇠를 많이 사용했으며 백동은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놋쇠가 귀해지면서 장식 재료로 쓰인 것 같았다.³¹⁾

무쇠로 된 장식은 검정색으로 검소하고 튼튼하여 반닫이, 책장, 찬장 등과 같이 무겁고 든든한 가구에 흔히 사용되었고, 그 수수한 색조때문에 남성용 가구에 잘 어울렸다. 놋쇠로 된 금속장식은 금과 같이 황색으로 반짝이는 효과를 주어 보다 화려한 분위기의 여성용 가구에 많이 쓰였고 백동으로 된 금속장식은 은과 비슷한 색조를 보여서 그 우아한 색조가 여성용 가구나 남성용 가구에 모두 잘 어울렸다. 금속 장식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목적의 것과 장식적인 목적의 것의 두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두가지 목적을 겸하여 사용되었다. 종류로는 경첩, 들쇠, 고리, 자물쇠, 앞바탕, 감잡이, 귀장식, 광두정, 뺨침대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금속판 위에 가공되는 무늬에 따라 다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다. 금속 장식의 무늬는 처음에는 단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려하게 발달하였다.

경첩의 기능은 장, 농, 반닫이 등의 문짝과 옆널에 부착하여 문짝을 개폐하는 것이었다. 경첩의 종류에는 기능을 위주로 하고 장식이 거의 없는 돌쩌귀 경첩, 날개판이 노출되어 다양한 형태와 무늬를 지닌 노출형 경첩, 경첩의 날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서양가구에서도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숨은 경첩이 있었다.

조선조 가구에서는 경첩을 노출시켜 기능과 장식을 동시에 꾀하였기 때문에 특히 노출형 경첩이 애용되었고, 이 중에는 다시 장, 농, 문갑 등과 같이 세로로 된 문짝에 사용되던 가로 형태로 길이가 짧은 단경첩과 함, 궤, 반닫이와 같이 상하로 개폐되는 문짝에 사용되던 세로 형태로 길이가 긴 장경첩이 있었다. 숨은 경첩은 의거리장이나

25)이칠용, 한국나전칠기

26)배만실, 앞책, p 245

27)정태진, 한국 식물 도록, 교육사, 1957, p 283

28)배만실, 앞책, p 246

29)서유집, 임원 16지에서 내용 참조 인용.

30)서유집, 임원 16지에서 내용 참조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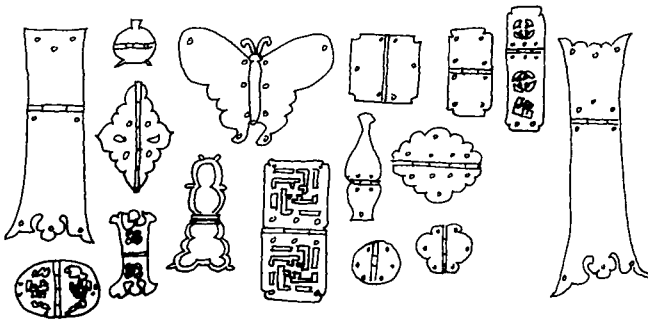
31)배만실, 앞책, p 179

문갑, 문판이 큰 책장 등과 같이 장식을 피하고 기능성을 위주로 하던 사랑방용 가구에서 흔히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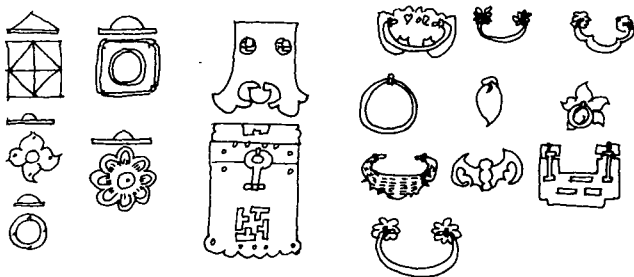
들쇠는 가구를 들어올리거나 서랍, 문짝을 열 수 있도록 만든 손잡이였다. 규모가 작은 문갑의 문짝, 장의 작은 문짝, 연상이나 서안의 서랍에는 배목 한개의 들쇠를 부착하였고, 규모가 큰 장의 문판과 서랍 등에는 배목 두개의 들쇠를 부착하였다.

고리는 문이나 서랍을 개폐할 때 손잡이로 쓰이거나 또는 문짝에 부착하여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 금속 장식이었다. 이것은 금속 장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³²⁾

자물쇠는 이불장, 옷장, 책장, 뒤주, 대문 등의 문짝이나 서랍을 잠그는데 사용되어 도난 방지는 물론 가구의 미적 효과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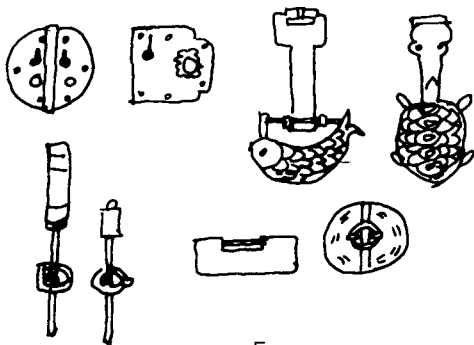
A



B

C

D



E

〈그림4-1〉 한국 민속가구에 사용된 여러가지 금속 장식
A. 경첩 B. 광두정 C. 자물쇠 앞바탕 D. 고리와 들쇠 E. 자물쇠

앞바탕이란 가구의 문을 여닫는 손잡이나 자물쇠를 받쳐주는 밑판을 말하였다. 손잡이나 자물쇠가 달린 부분은 항상 손이 많이 닿고 또한 흠집이 생기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앞바탕은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앞바탕이 부착되는 위치가 가구의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장식적인 요소도 강하게 작용하여 무늬와 형태가 화려하

였다.

감잡이는 접합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 등을 잡아 주기도 하고 외부와의 접촉시에 가구 자체의 모서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감잡이는 부착되는 위치에 따라서 허릿대 감잡이, 개판 감잡이로 분류되었다.

귀장식은 가구의 귀부분을 구조적으로 잡아주고, 외부로부터 물체가 가구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며 장식도 겸하였다. 감잡이와 귀장식의 차이는 감잡이가 입체적으로 양면을 잡아주는데 반해, 귀장식은 평면적으로 귀부분만을 잡아주는데 그 차이가 있었다. 귀장식도 부착되는 위치에 따라 개판 귀장식, 문판 귀장식, 족통 귀장식으로 불리었다.

광두정은 못자국을 감추어 주는 구조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허전한 공간을 조화있게 메꾸는 역할을 하였다. 광두정은 구조적 기능보다는 장식적 기능이 더 강조되었고 입체감을 주는 유일한 것으로 반닫이, 농, 장의 가구장식에 흔히 쓰였다.

뺨침대는 문짝에 붙이는 긴 막대 모양의 금속 장식으로 들쇠를 겸한 장식용 쇠붙이였으며 일명 길목 이라고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두꺼운 문짝이나 뚜껑의 무게를 받쳐주기 위해서 튼튼하고 굵은 길목을 사용하였다.

4-2. 무늬(motif)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검소함을 생활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구에 사용한 무늬도 역시 화려하지 않았고 지나친 장식도 삼갔다. 다만 악귀를 쫓고 수복을 염원하는 수술적인 관념이 농후했기 때문에 조상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녀자들의 도리를 지키며 자식의 복록을 기원하는 기본 관념이 수술적으로 표현되고 도식화 된 것이 그 시대의 무늬였다. 즉 자연 현상에서 장수를 염원하였고 동식물 무늬에서 오복을 갖춘 상서로운 형태를 찾았으며 길상어문에서 수복강령과 부귀다남을 염원하는 꿈을 담고 있었다³³⁾

이러한 무늬들은 가구는 물론 모든 일상 생활용품에도 널리 응용되어 쓰였다. 한국의 민속가구에 사용된 무늬들은 크게 나누어 자연 무늬, 동물 무늬, 식물 무늬, 동양 철학에서 유래된 음양 무늬, 행운, 다복, 다남과 장수를 비는 한자를 포함한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장식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이 무늬들은 조각, 상감, 금속 장식의 소재로 다양하게 디자인되어 사용되었다. 한국 민속가구 장식 무늬의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곁에 보이는 사실적인 그 형태 자체보다도 각기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따라서 대부분의 무늬들은 그 나름대로 특수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다.

4-2-1 식물 무늬와 동물 무늬

식물 무늬는 유교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와 같은 사군자 무늬들은 절개와 정직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연꽃, 작약, 포도덩쿨 등도 무늬로 많이 쓰였는데 특히 연꽃 무늬는 불교가 한국에 소개된 삼국시대(5-6세기) 이후로 불교의 사찰을 비롯하여 일반 가정의 가구 전반에 널리 퍼져서 애용된 무늬였다. 포도 무늬는 그 많은 열매 알갱이 모양

33) 배만실, 앞책, p 154

이 자식을, 특히 아들을 많이 가지기를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소망과 연관되어 다산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작고 귀여운 배꽃과 복숭아 무늬는 특히 서랍과 문짝의 금속 장식인 손잡이와 들쇠의 무늬로 많이 쓰였다. 특히 꽃과 새 무늬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상징하여, 여성용인 안방 가구에는 물론, 안방 다락문의 그림, 이부자리와 방석의 지수용 무늬 소재로도 많이 쓰였다.

동물 무늬로는 사슴, 거북, 학, 용, 제비, 봉어, 잉어, 나비, 박쥐, 새와 같은 동물 무늬들이 한국의 민속가구 장식 무늬로 많이 쓰였다. 이 들 중에서도 사슴, 거북, 학과 같은 동물 무늬는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무늬로도 함께 사용되었고 거북, 봉어, 나비, 제비, 박쥐 등은 금속 장식인 자물쇠, 들쇠, 경첩의 무늬로 애용되기도 하였다. 제비는 그 날씬한 꼬리 모양이 아름다워서, 그리고 나비는 그 정교한 날개의 모양이 아름다워서 금속 장식의 무늬로 애용되었다.

박쥐는 밤에도 잠들지 않고 활동하는 성향때문에 복을 지키고 행운을 상징한다 하여 날개를 편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수납용 가구의 손잡이 장식으로 흔히 쓰였다. 용은 동양 사회에서는 예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왕의 상징적인 무늬로 많이 쓰였으므로 남성용 가구에 종종 사용되었으나, 뱀은 덴마크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전혀 무늬로 사용되지 않았다.

4-2-2 기하학적 무늬와 음양 무늬

대부분의 기하학적 무늬는 행운, 장수, 행복을 상징하는 한자를 단순화하고 양식화하거나 불교의 상징인 근자 무늬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즐겨 사용된 한자로는 수, 복, 강,녕,희(壽,福,康,寧,喜) 등의 길상 문자가 많았다. 이러한 무늬들은 가구 뿐만 아니라 백제 무령왕릉과 같은 고대 고분의 무늬나 건축물의 담장 무늬로도 함께 사용되어 왔다. 단순한 사각형, 삼각형, 원형의 무늬들도 역시 금속 장식에서 경첩, 손잡이, 모서리 감잡이와 같은 곳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었다.

음양 무늬는 하늘과 땅, 해와 달, 남과 여, 음과 양, 긍정과 부정, 수동과 능동 등과 같은 서로 상대적인 것 사이에서 우주적인 균형을도 모하는 동양적인 철학 사상에서 유래된 무늬로서 가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의 국기까지도 이러한 음양론에서 발달된 디자인이므로 이 음양 무늬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무늬의 소재였다.

4-2-3 십장생 무늬와 자연 무늬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무늬는 해, 달, 물, 바위, 구름, 소나무, 거북, 학, 사슴, 그리고 전설의 식물인 불로초의 열가지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슴, 소나무, 학이 가장 흔히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조각, 상감, 그림과 지수의 소재로도 자주 애용되었다.

자연 무늬는 우주 공간의 자연 환경에서 유래된 무늬로서 산, 물, 돌, 구름, 해, 달, 등이 가구에 사용되었다.³⁴⁾ 이러한 무늬들은 영원 무궁한 자연의 특성과 연결지어 장수를 상징하였다.

4-2-4 여의두와 안상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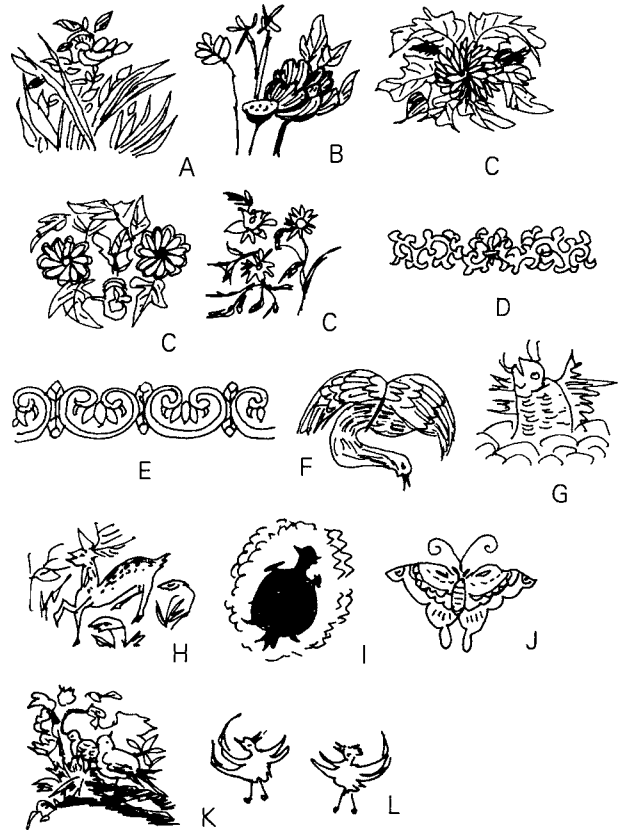
여의두와 안상 무늬는 우아한 곡선으로 구성된 무늬로서 흔히 남성용 가구인 서안, 특히 경상, 책장, 머릿장 등의 다리 부분에 조각의 소재로 애용되었다. 한국의 민속가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여의두나 안상 무늬와 같은 곡선 무늬가 가구의 일부분에 약간만 사용되어도 가구 전체에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 주었다.³⁵⁾ 이 무늬는 불교의 무늬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단순화된 구름 무늬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상에서 관찰한 한국 민속가구에 사용된 무늬의 종류와 기능별 가구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표 4-1과 같다.

〈표4-1〉 조선조 민속가구에 사용된 무늬와 기능별 가구와의 관계

배치 위치	사용자	가구의 종류	기능	많이 사용된 무늬
안방용 가구	여성	장,농,반단아, 문갑	수납용	식물문, 십장생문, 동물문(송, 녹, 학)
사랑방용 가구	남성	의거리장, 책장, 책능, 사방탁자, 문갑서안	수납용, 문방용	한자문, 십장생문, 사군자문(매, 죽), 자연문(구름), 동물문(학), 기하문, 여의두문, 안상문
주방용 가구	여성, 남성, 여성	찬장,찬탁, 뒤횈, 소반	수납용, 식사용	무늬없음, 식물문, 기하문, 동물문, 여의두, 안상문.



〈그림4-2〉 식물 무늬와 동물 무늬

A. 난초 B. 연꽃 C. 국화 D. 당초문 E. 인동문 F. 학 G. 잉어 H. 사슴 I. 거북 J. 나비 K. 새 L. 봉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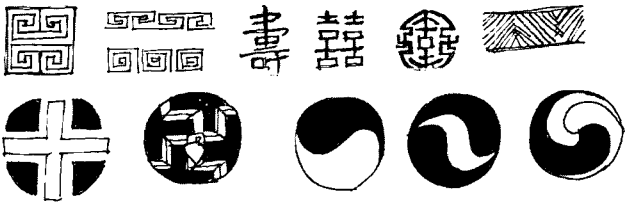
5. 덴마크와 한국의 민속가구 장식의 비교

두 나라 민속가구의 장식적 표현기법과 무늬를 비교하니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명확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차이점은 첫째로, 민속가구에 사용된 재료가 서로 달랐다. 목재에

34) 배만실, 앞책, p 158

35) Bokcha Yoon, Soon Chi, Youngsoon Park, 앞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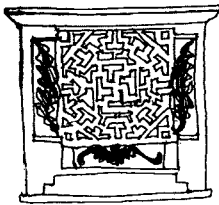
〈그림4-3〉 기하학적 무늬와 음양무늬



〈그림4-4〉 십장생 무늬와 자연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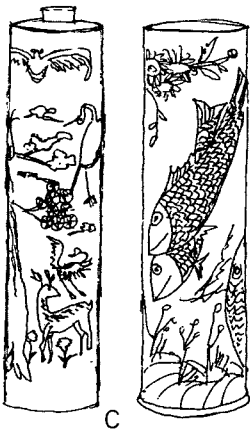
〈그림4-5〉 여의두와 안상무늬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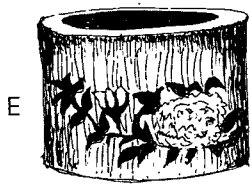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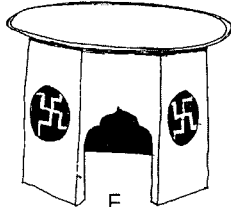


C

D



E



F

〈그림4-6〉 한국 민속가구에 사용된 장식 무늬의 예
 A 卍자문, 박쥐문, 식물문-해주반 측면, 19세기, 국립박물관 소장품
 B 식물문-해주반 측면, 19세기, 이대원 소장품
 C 십장생문, 박쥐문-대나무 필통, 19세기, 유강열 소장품
 D 불어문, 국화문, 자연문-대나무 필통, 19세기, 유강열 소장품
 E 모란문-대나무 종이틀, 19세기, 전성우 소장품
 F 卍자문-반상, 19세기, 최구 소장품

있어서 덴마크에서는 주로 침엽수가 많이 사용되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활엽수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덴마크에서는 색칠하기가, 한국에서는 나뭇결을 그대로 내보이는 방법이 발달된 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활엽수는 침엽수보다 아름다운 나뭇결을 가지고 있어서 나뭇결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내보이는데 더 적합하였을 것이고,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너무 흔하여 색칠하기를 통하여 변화를 주고 보다 아름다운 가구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한편, 한국 민속가구에서 가구의 재료로 사용된 형질과 종이는 덴마크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둘째로 덴마크의 경우에는 민속가구에서의 금속의 사용은 매우 드물었으나 한국의 가구에는 비교적 풍부한 금속 장식이 많이 부착되어 사용되었다. 이것은 예부터 한국에서 금속이 생산되었던데 비하여 덴마크에서는 금속의 생산이 적어서 그 재료와 공정이 비쌌기 때문에 상류층의 가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³⁶⁾

그러므로 덴마크의 민속가구에서는 실제 금속 장식대신에 가구에 금속띠를 그림으로 그린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밝고 화려한 색채와 무늬로 색칠된 덴마크의 민속가구에는 더 이상 많은 금속 장식을 부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나 자연스런 나뭇결을 그대로 내보이는 한국의 민속가구의 경우에는 풍부한 금속 장식이 더 적합했을 것이다.

셋째로 장식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가구 전체를 화려한 색채로 칠하는 방법이 발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그대로 내보이는 방법이 발달하였다. 덴마크에서 이처럼 화려하게 색칠한 가구가 발달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자연환경에서 접하는 길고 어두운 겨울때문이었다.³⁷⁾ 침침하고 춥고 긴 겨울 동안, 그들은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따라서 그러한 기후에 대한 반작용으로 실내 환경이나 가구에 보다 밝고 화려한 색을 칠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었다.

덴마크에서는 나뭇결을 내보이는 방법은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았다. 덴마크 농가에서도 마감처리하지 않은 목재(bare wood)를 테이블 상판으로 사용한 예는 있었으나, 이것은 나뭇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용성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덴마크에서 발달된 돌이나 귀한 나무를 모방하여 색칠로 그리는 방법(imitation painting)도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변에서 쉽게 살 수 없었던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싶어한 소망의 표현이었다. 장식 방법에 있어서 옷칠, 상감 방법은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인데 비하여, 덴마크에서는 상류층 가구를 제외한 민속가구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넷째로, 가구의 장식에 사용된 무늬가 두 나라에서 서로 달랐다. 두 나라에서 서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무늬 중에는 육각형 별 무늬, 사람 무늬, 성경내용 무늬, 음양 무늬 등이 있었고, 식물 무늬, 동

36)Denmark Køge Museum의 Gunnar Solvang씨와의 인터뷰 자료에 의함.
 37)Jocasta Innes and Suzanne Moore, Scandinavian Painted Furniture, A Step-by-step Workbook, Cassell Publishers Ltd., London, 1994

물 무늬, 기하학적 무늬들은 두 나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자연 무늬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해와 달 무늬가 디자인의 대상으로 선호되었으나 덴마크에서는 그 보다는 별 무늬가 더 선호되었다. 그러나 별 무늬는 한국의 가구에서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었다. 사람 무늬도 역시 덴마크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무늬였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식물과 꽃 무늬 중에서는 무늬의 소재를 그들의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서 선택하였으므로 그 선호하는 종류에 매우 다른 차이가 나타났다. 튜립과 장미는 덴마크에서 보다 일반적이었고, 반면에 대나무, 매화, 국화, 배꽃, 난초, 연꽃 등은 한국에서 더 일반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동물 무늬 중에서도 백조와 뱀 무늬는 덴마크 가구에서는 흔히 눈에 띄었으나 한국의 가구에서는 드물었다. 종교적인 배경에서 유래된 무늬들이 서로 달랐던 것도 당연한 사실이었다. 기독교에서 유래된 아담과 이브, 사과 나무, 뱀 무늬가 덴마크에서는 흔히 쓰인 반면, 한국에서는 불교와 민간 신앙에서 유래된 연꽃, 불교의 상징인 근자, 그리고 장수와 행운을 상징하는 무늬들이 더 많이 쓰였다(표 5-1).

〈표5-1〉 덴마크와 한국의 민속가구에 사용된 무늬의 비교

무늬		덴마크	한국	무늬		덴마크	한국
동물 무늬	박쥐	*	*	자연 무늬	해 달 별 구름 산 바위 강	*	*
	새	*	*				*
	나비	*	*				*
	학	*	*				*
	사슴	*	*				*
	웅	*	*				*
	물고기	*	*				*
뱀	*	*	*				
제비	*	*	*				
백조	*	*	*				
거북	*	*	*				
곡선 무늬	로코코	*	*	식물과 꽃 무늬	대나무 불노초 국화 포도 연꽃 난초 배꽃 매화 장미 튜립	*	*
	곡선무늬	*	*				*
기하학적 무늬	여의두와 안상무늬	*	*				*
	글자	*	*				*
	원	*	*				*
	근 사각형	*	*				*
사람무늬	*	*	음양무늬				*

범례: * 자주 사용된 무늬

두 나라 가구의 무늬에 있어서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었다. 덴마크의 무늬는 보다 그들의 일상생활 주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적인데 반하여 한국의 무늬는 사실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고 개념적이었다.

무늬의 선호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의 주된 이유는 한국의 무늬는 기본적으로 불교, 유교, 샤머니즘의 기반에서 유래된 반면, 덴마크의 무늬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이상에서 관찰한 두나라의 민속가구 장식에 있어서 차이점 이외에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조각은 두나라에서 모두 가구에 즐겨 사용되었다. 음각이나 양각을 이용하여 목재에 무늬나 글씨를 새기는 방법은 흔히 볼 수 있었다.

둘째로 두나라의 무늬들 중에서 덴마크에서의 로코코(rococo) 곡선 무늬와 한국에서의 여의두와 안상 무늬는, 전자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 예술에서 유래되었고 후자는 불교로 부터 유래되어 서로 매우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아한 곡선의 형태가 서로 비슷하여 주목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모두 생태학적인 배경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들의 민속가구 재료와 장식 무늬의 소재를 발견하였다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나날이 밀접해지고 있는 현대의 국제화 사회에서 외국인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교문화 연구의 일환으로서 덴마크와 한국의 민속가구에 있어서 장식적 표현기법과 무늬를 비교하였다. 민속가구의 대상은 덴마크의 경우에는 18-19 세기에 농촌에서 제작되고 사용된 가구를,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조 가구 중 왕실가구만을 제외한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두 나라의 민속가구의 장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민속가구에 사용된 재료가 달랐다. 두 나라 모두 목재가 주 재료였으나 덴마크에서는 침엽수가, 한국에서는 활엽수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재료의 차이는 가구의 장식 기법이 다르게 발달되는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로, 덴마크의 민속가구에는 기능적인 목적 이외에는 금속 장식이 거의 쓰이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많은 금속 장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금속 장식은 기능성 이외에도 중요한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무늬들이 금속 장식에 사용되었다.

셋째로, 덴마크에서 발달된 가구에 색칠을 하는 방법은 어둡고 길고 추운 겨울을 주로 실내에서 보내야 하는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생활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비싼 목재나 석재를 모방하여 그리는 방법도 그러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덴마크 특유의 생활 환경에서 발달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식 방법은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넷째로, 장식 무늬의 소재는 두나라의 종교적, 사회적인 배경이 달라서 서로 다르게 선택되었다. 유교적인 개념과 민간 신앙에 바탕을 둔 한국의 무늬는 기독교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사실적인 무늬를 사용한 덴마크에 비해 보다 상징성이 강하였다.

다섯째로, 양각이나 음각과 같은 조각은 두 나라 모두에서 중요한 장식의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두나라에서 가구의 재료와 장식 무늬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지만 이러한 차이가 각기 그들의 자연 환경과 생태학적인 환경에 적응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고 비록 인간들이 서로 다른 환

경에서 격리된채 살아왔다 하더라도 생활 가구의 장식을 통하여 자신들의 염원과 소망을 표현하려 하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예술을 보다 진실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 생활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문화 연구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달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한국의 가구 디자인 발달에도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24. Malede, Bondemøbler, Nationalmuseet, København.

25. Niels-Knud Liebgott, Kister og Skabe, Nationalmuseet, København, 1975.

26. Sigurd Schoubye, Folkekunsten på Tønderregnen, Tønder Museum 1968.

27. Torben Grongard Jeppesen and Peter Steen Johansen, Den fynske Landsby. Open-air museum Guide. 3. rev. edition 1990. Den fynske Landsby.

〈접수 : 1997. 8.1〉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예미술, 1978.
2. 배만실,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 2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3. 배만실, 이조목공가구의 미, 보성출판사, 1980.
4. 진상재, 한국인의 생활문양, 선진문화사, 1987.
5. 최정신, 구나 솔뱅, 한국과 덴마크의 민속 테이블의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6권 제2호, 1995.12:181-189
6. 최정신, 마노 구딕슨, 덴마크 민속가구 장식의 특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5호, 통권91호, 1996. 5: 85-97.
7. 최정신, 덴마크의 민속 의자 디자인,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6권 제1호, 1996, 12: 121-138
8. Jung Shin Choi, A Comparative Study of Ornament in Danish and Korean Folk Furniture,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School of Architecture, Copenhagen, 1995
9. Axel Steensberg, "Jersie-Stolene", Danske Museet, Aarbor for Dansk Kulturhistorisk Museumsforening, Alfred G. Hassings Forlag, København, 1951: 21-34
10. Axel Steensberg, Dansk Bondemøbler,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København, 1973.
11. Axel Steensberg and Grith Lerche, Danske Bondemøbler Danish Peasant Furniture Bind 1, 2,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København, 1989.
12. Beth Mckillop, Korean Arts and Design, The Sam Sung Gallery of Korean Arts, Victoria and Albert Museum, Great Britain, 1992.
13. Bokcha Yoon, Soon Chi, Youngsoon Park, Korean Furniture and Culture, Shinkwang Co. Seoul, Korea, 1988.
14. Byung-Ok Chun, Decorated Design in the Houses of Chosun Dynasty Period, Po Chin Chai Publishing Co. Ltd. Seoul Korea, 1988.
15. Christian Wøgepetersen, Danske Møbler for 1848, Forum, København, 1980.
16. Edward Reynolds Wright and Man Sill Pai, Korean Furniture, Elegance and Tradition,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4.
17. Gisliind Ritz, Alte bemalte Bauermöbel Europa, Verlag Georg D.W. Callwey München, 1970.
18. Gisliind Ritz, Alte Geschnitzte Bauermöbel, Verlag Georg D.W. Callwey München, 1974.
19. Holger Rasmussen, "Bondens stue og arbejdsrum", Den Dansk Bondgrd, Fyens Stiftsbogtrykkeri, Odense, 1965: 65-84
20. JoAnn Barwick, Scandinavian Country,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91.
21. Jocasta Innes and Suzanne Moore, Scandinavian Painted Furniture, A Step-by-step Workbook, Cassell Publishers Ltd., London, 1994.
22. Kai Uldall, Dansk Folkekunst, Thaning & Apples Forlag, København, 1963.
23. Lars Friis, Gemmemøbler, Nationalmuseet, København, 1976.